

순천시 주민세 시민이 원하는 곳에 직접 쓴다

광주·전남 최초... 주민세 개인균등분 전액 환원·주민자치 활동 지원

순천시는 올해부터 주민세 환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풀뿌리 마을민주주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왔다. 순천시는 2019년 8개 시별 주민자치회 추진에 이어 2021년 올해는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행과 함께 읍면동 주민세 환원사업을 추진한다. 주민세 환원은 주민에게 징수한 주민세 상당액을 해당 읍면동 마

을 자치사업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는 지난해 징수한 주민세 개인균등분 징수액 전액으로 약 10억원에 이른다. 3월부터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읍면동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얻은 사업은 주민세 환원 사업으로 편성

되어 2022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세 환원을 통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읍면동 사업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결정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 도시 순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구례 농촌진흥분야 사업대상자 선정

농촌진흥사업 총 26개 사업 27억8300만원 투입

구례군이 2021년 새기술보급 사업 및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지난달 23일부터 3일간 농업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농촌진흥분야 26개 사업 27억8300만원 129개소 대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확정된 사업은 시설채소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 청년농업인 육성,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 인공적인 귀농귀촌 정착지원,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지원 등 총 5개 분야이다. 시설채소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은 7개소 1.9ha 규모로 총사업비 10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구례지역 여건에 맞는 오이·애호박 재배용 내재해형규격 시설로 구축하여 재해 위험을 예방한다.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시설 구동 및 모니터링 환경제

어를 통해 시설재배 농업인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분야에서는 총사업비 9600백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콩 재배단지 60ha를 조성하고 수확용 콤바인과 트랙터 부착용 비닐피복기를 활용한 콩 농사의 기계화 재배기술을 도입한다. 또한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5억원을 지원하여 시설재배 농가의 난방비를 절감하고 고령농업인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대체작물을 생산할 예정이다. 특히 군으로 전입예정인 귀농귀촌인을 위해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9개 사업에 6억원을 투입하여 청장년 귀농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구례=오광범 기자

순천시 소상공인 3~4월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육탕용 상하수도 사용자로, 3~4월 고지분에 적용되며, 관공서·학교 등은 제외되며,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3월부터 4월까지 매월 50% 일괄 감면 고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3개월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억 5500만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 바 있으며, 올해는 2개월간 약 8억원 규모의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양 남도장터 통해 '라이브 매화장터' 연다

11일 오후 2시, 매실농가 가공식품 온라인 판매 지원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년 연속 매화축제 취소로 타격을 맞은 매실농가의 소득 보전에 나섰다. 시는 실시간 동영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라이브 매화장터'를 연다고 3일 밝혔다. '라이브 매화장터' 시청과 상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11일 오후 2시 '네이버 쇼핑라이브'에 접속해 '남도장터'를 검색해야 한다. 이번 라이브 매화장터는 유명 유투

버와 개그맨 등이 출연해 매실 가공상품 정보를 재미있게 전달하고 상품 인지도와 구매율을 높일 계획이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곧바로 해소하는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제품 신뢰도를 높이고, 호기심과 구매욕을 자극해 판매 촉진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방송 중 상품을 구매하고 고객에게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깜짝 할인쿠폰 지급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또한, 봄의 절정을 이루

는 매화마을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되는 만큼 매화마을을 방문하지 못하는 시청자에게 아쉬움을 해소하는 선물이 될 예정이다. 시는 '라이브 매화장터' 이후에도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에서 운영하는 전남 대표 농수축산 쇼핑몰 '남도장터'를 통해 매실 가공상품의 상시 판매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박순기 관광과장은 "이번 라이브 매화장터를 통해 광양의 대표 특산물인 매실과 매실 가공상품이 다양한 지역과 세대의 소비자에게 폭넓게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곡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상담·교육·직업체험·건강검진 등 서비스

곡성군은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곡성군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곡성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자립 지원, 건강검진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센터는 수요자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욕구와 특성에 맞춰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정고시대비반 스마트교실, 자기계발을 위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반, 컴퓨터자격취득대비반, 영어회화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만 9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교육참여 수당도 지급한다. 지급요건은 센터 등록 후 매월 6회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지원금은 교통비, 간식비, 교육비, 문화활동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곡성=이상석 기자

순천시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내일 '사랑의 헌혈' 실시

순천시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해 이어 2021년에도 3개월마다 4회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한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헌혈 나눔 실천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번째 나눔실천 헌혈은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앞마당에서 지역시민단체인 신대지구발전위원회, 유관기관단체, 지역주민과 함께 사랑의 헌혈을 실시한다. 헌혈 참여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하며, 만16세 이상 7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순천=조순익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보성군여성단체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위문 '사랑 나눔'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과 보성군여성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월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 4개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한파의 영향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 직원들이 실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지역특산물 판로 지원을 위해 보성군 특산품을 구입해 지원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에는 보성군에서 생산되는 팥기를 활용한 타르트 키트 박스를 전달해 직접 만드는 체험활동으로 아동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었다. 기념연 단장은 "코로나19와 한

파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특산물 판로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영미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기부문화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서 뜻깊은 하루였다"고 말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광양 도심 속 숲 체험 프로그램

광양시는 3월부터 12월까지 마동저수지생태공원 방문자센터에서 도심 속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심 속 생태숲의 자연을 느끼고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를 체험하면서 감성을 자극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초등부 이하, 청소년, 일반인 등 참여자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현충탑 들레길, 가야산, 와우생태호수공원, 마동저수지 생태숲 총 4곳에서 숲 탐방과 다양한 만들기로 구성됐다. 숲 체험 프로그램은 광양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평일 오후 2시부터 90분 과정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사전예약해야 하며, 신청은 광양시 공원과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방문자센터(061-797-3724)로 하면 된다. /광양=조순익 기자

